

[논단]

에큐메니컬 교회론에 대한 추기경 애버리 덜레스(Avery Dulles, S.J., 1918~2008)의 전(全) 작품 분석*

■
서한석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신부]

- I. 들어가는 말
- II. 본론
 - 2.1. 애버리 덜레스(Avery Dulles, S.J.)의 첫 번째 시기(1960~1974)
 - 2.2. 두 번째 시기(1974~1988)
 - 2.3. 세 번째 시기(1988~2008)
- III. 결론

I.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교회론 학자들 가운데에서 하나인 이브 콩가르(Yves Congar, 1904~1995)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짙어진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일치운동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일치의 진리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희망을 일으키는 운동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요 없게 된 여러 사상과 실제의 무게에 의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움직임이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열정’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원기 왕성한 에큐메니컬 교회론적 방향성을 미국의 예수회

* 이 글은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신학자인 애버리 로버트 덜레스(Avery Robert Dulles, 1918~2008)의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서 제시한다. 덜레스는 자신의 수많은 작품들 안에서 특별히 미국의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전수하는 역동적인 일치의 공동체임을 제시한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한 덜레스의 사상은 현대의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기까지 했던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에큐메니컬을 일으켜 현 시대를 향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찰하도록 이끈다. 과연 애버리 덜레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심각한 균열은 온 그리스도교 형제들과 공동체들이 세상을 향해 발산해야 할 교회 가톨릭성의 복음화 사명(마태 28,19~20 참조)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음을 절박하게 체휼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에큐메니컬 교회론’이라는 중심주제 안에서 덜레스의 전(全) 작품들 곧 그의 신학적 여정이 결실을 맺은 650여개의 소논문들(articles)과 28권의 저서들을 그의 생애의 시기별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애버리 덜레스의 신학적 여정 안에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거대한 교회론의 재료들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론은 이제 일치를 향한 현대 그리스도교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격려할 것이다.¹⁾

1) Cf. R. W. Jenson, "Tribute: Avery Cardinal Dulles", *Pro Ecclesia* 10(Spring/2001), 133~134.

II. 본 론

2.1. 애버리 덜레스(Avery Dulles, S.J.)²⁾의 첫 번째 시기(1960~1974)

애버리 덜레스는 자신의 수많은 저서들 가운데에서 대략 680여 개의 작품들을 특별히 교회론에 헌신하는데,³⁾ 그의 교회론 안에서는 명시적으로든 혹은 함축적으로든 에큐메니컬 신학이 특별하게 자리 잡는다.⁴⁾ 그의 신학적 활동에서 쏟아져 나왔던 다양한 저서와

2) 애버리 덜레스는 1918년 8월 24일, 뉴욕 서부에 위치한 Cayuga령의 Auburn 도시, Rochester 교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Allen Macy Dulles는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였고, 미국 신학 협회의 설립자들 중에 하나였다. Cf. A. Dulles, *Ho scelto la verità*, Milano, 1959, 13-14. 당시 덜레스의 가족은 미합중국의 덕망 높은 외교-정치적 가문의 역사를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시절의 미국 국무 총리였던 John Foster와 Janet Pomeroy의 아들이다. Cf. P. Benson, *The Church in the Theological Writings of Avery Dulles*, Frankfurt am Main, 2007, 5. 그의 삼촌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첩보 조직을 이끌고 그 이후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장이 된 Allen Dulles였다(Cf. “Cardinal Avery Dulles, Theologian, Is Dead at 90” in *The New York Times* By Robert D. McFadden, published: December 12, 2008). 그는 1946년 예수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1956년 6월 16일 뉴욕 대주교 추기경 Francis Spellman에 의해 사제서품을 받는다. 이후 1957~1958년 독일의 Münster에서 수학하고 그 후 1960년 로마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에서, 논문 *Protestant Churches and the Prophetic Office*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New York, 2010, 134-148. 그리고 Id., *A Testimonial to Grace and Reflections on a Theological Journey*, 50th Anniversary edition, Kansas City, 1996, 106.

3) 이 가운데서, 본 연구는 교회론에 관련된 232개의 아티클과 에큐메니즘에 관련된 189여개 그리고 기초 신학에 관련된 107여개의 작품과 “서평”에서 103여개 그리고 다른 주제와 관련된 저작에서 30여개를 제시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덜레스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에큐메니즘과 교회론이 구별되고 분리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Cf. A. Kirmse, *The Church and the Churches - A Study of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Developments in the Writings of Avery Dulles, S.J.*, New York, 1989, 40 또한 A. Kirmse and Michael M. Canaris, ed., *The legacy of Avery Cardinal Dulles, S.J.*, New York, 2011, 3~86.

4) 교회론과 관련된 애버리 덜레스의 작품은 특별히 Roberta R. Spezia의 논문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A Hermeneutical Key*, Romae, 2003의 제2장 “The Matter of Avery Dulles’ Ecclesiology”, 35~82에 의해서도 Patrick W. Carey의 연구 논문 *Avery Cardinal Dulles, S.J.*, New York, 2010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이 두 저

에세이 그리고 아티클은 전체적으로 덜레스가 걸어온 세 시기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⁵⁾ 그 첫 번째 시기는, 덜레스가 Woodstock College에서 기초 신학을 가르쳤던 14년의 기간으로(1960~1974)로, 교회론 안에서도 특별히 에큐메니즘에 강하게 집중했던 시기이다.⁶⁾ 이미 그는 1953년 Woodstock College에 입학 후 예수회 교수 Gustave Weigel⁷⁾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과 교회론 그리고 에

자들의 주제를 넘어서 덜레스 신학의 세 단계 여정 안에서 특별히 특화된 덜레스의 에큐메니컬 신학을 제시한다.

5) Roberta R. Spezia는 자신의 논문에서 덜레스 저술들의 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46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을 때(1965년)까지의 기간이고, 두 번째 시기는 Woodstock College(1960~1974)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의 교수재직 시절인 덜레스 신학의 초반기(1966년부터 1980년까지)이다. 세 번째 시기는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기간(1974~1988)이다. 그리고 1981년부터 2001년 2월 21일 그의 추기경 서임일까지를 마지막 네 번째 시기로 본다. 특별히 중간시기와 마지막 시기들을 분석하면서, Spezia는 덜레스 교회론의 몸체에서 1981년은 그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방향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다고 본다. Cf.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A Hermeneutical Key*, 60-64. 그러나, ‘가톨릭성 신학 연구’를 위해서 굳이 1981년을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성에 대한 그의 신학은 에큐메니컬 흐름을 왕성하게 진행시켰던 70년대의 저술들 안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이를 기초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전개된 ‘가톨릭성’이라는 주제는 8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드러난다. 본고는 에큐메니컬의 흐름 안에서 탐지된 ‘교회의 가톨릭성 신학’을 덜레스의 세 단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다. 사실 에큐메니즘과 가톨릭성 신학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 완성되기 때문에 그의 저작들로 신학적 시기를 구분한다는 점은 어려운 일이다. Cf. A. Kirmse, *The Church and the Churches – A Study of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Developments in the Writings of Avery Dulles, S.J.*, Fordham University, 40. 또한 Cf. D. Hercsik, “Avery Dulles: Teologo e Cardinale”, *Civiltà Cattolica*(이하 CivCatt) 2003~3(6 September/2003), 357~358; A. Kirmse and Michael M. Canaris, ed., *The Legacy of Avery Cardinal Dulles, s.j.: His Words and His Witness*, 127.

6) Cf. D. Hercsik, “Avery Dulles: Teologo e Cardinale”, 357~358.

7) Cf. A. Dulles, “Foreword”, in Paul M. Minus, *The Catholic Rediscovery of Protestantism: A History of Roman Catholic Ecumenical Pioneering*, New York, 1976, 3; Id., “Book Review: Gustave Weigel, S.J.: A Pioneer of Reform”, by Patrick W. Collins”, *The Catholic Historical Review*(이하 CHR) 78(July 1/1992), 478-479. Gustave Weigel(1906~1964)은 미국 내의 종교 일치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자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그의 에큐메니컬 방법론은 현재까지도 가톨릭 교회 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Cf. Walter J. Burghardt, S.J., “Man for Others: Reflection on Gustave Weigel”, *Woodstock Letters*(이하 WoL)

큐메니즘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이 첫 번째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 에큐메니컬 교회론을 위한 저술들은 이러한 덜레스의 신학적 경험과 함께 태어났다. 1954년 그는 아티클 “Church Unity and Roman Primacy in the Doctrine of St. Cyprian”⁸⁾을 저술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통일성에 대해서 다룬다. 특별히 각 지역교회의 주교들과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교황의 으뜸 수위권에 집중하면서,⁹⁾ 교부 치프리아노가 제시한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 주제가 그로부터 8년 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특별히 LG 23 참조) 중요하게 언급된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기만 하다. 그 이듬해 아티클 “The Protestant Concept of Church”와 “Church Unity”¹⁰⁾에서, 덜레스는 영적 교회론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직면하면서, 특별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와 하느님 말씀의 육화 사건 사이의 유비를 통해 ‘성사로서의 교회론’에 심취한다. 더 나아가 덜레스는 1957년, 동방 정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The Orthodox Churches and the Ecumenical Movement”를 저술한다.¹¹⁾ 이처럼 덜레스에게 있어서 그자신의 신학의 첫 단추를 채웠던 중심 흐름은 바로 에큐메니즘이었다.

사제가 되고 난 1960년대 이후, 덜레스는 Woodstock College에서 교수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관심 분야들”(areas of interest)¹²⁾은 ‘에큐메니컬 교회론’과 보편적(가톨릭) ‘계시 신학’이었다.¹³⁾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도 존재하는 참된 교회들의 흔적들’

97(Fall/1968), 605.

8) Cf. A. Dulles, “Church Unity and Roman Primacy in the Doctrine of St. Cyprian”, *Theologian* 9(Spring/1954), 33~48.

9) Cf. A. Dulles, “Church Unity and Roman Primacy in the Doctrine of St. Cyprian”, 45; Id., *The Reshaping of Catholicism: Current Challenges in the Theology of Church*, San Francisco, 1988, 225.

10) Cf. A. Dulles, “The Protestant Concept of the Church”, *American Ecclesiastical Review*(이하 *AEcR*) 132(May/1955), 330~335; Id., “Church Unity”, *Worship* 29(October/1955), 509~517.

11) Cf. A. Dulles, “The Orthodox Churches and the Ecumenical Movement”, *Downside Review*(이하 *DR*) 75(January/1957), 38~54.

12) Cf. A. Kirmse, *The Church and the Churches*, 11~26.

13)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165~166.

(*Vestigia Ecclesiae*)이라는 주제는 덜레스로 하여금 1964년 아티클 “Pope Paul’s Ecumenical Perspective”를 저술하도록 이끈다. 이 아티클은 에큐메니컬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가톨릭의 원칙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성’을 통해서 LG 8에서 제시된 “subsistit in” 문제를 ‘그리스도교인들의 공통된 유산’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해석하도록 안내한다.¹⁴⁾ 사실 1959년의 아티클 “Protestants and Catholics in Germany”와 1961년의 “What Hopes and What Misgivings Do You Entertain Regarding The Currently Emerging Religious Dialogue in America?: An Exchange of Views among Christian Writers”는, 덜레스가 그 당시 얼마나 에큐메니컬 활동에 전념했는지를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¹⁵⁾ 또한 이

14) Cf. A. Dulles, “Pope Paul’s Ecumenical Perspective”, *Catholic World*(이하 *CW*) 200 (October/1964), 19-20. “안에 존속한다”(subsistit in)의 주제는 덜레스의 2000년도 저작들에도 회자되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서 Cf. A. Dulles, “Vatican II: The Myth and the Reality”, *America* 188(February 24/2003), 7-11; Id., “Vatican II: Substantive Teaching: A Reply to John W. O’Malley and Others”, *America* 188(March 31/2003), 14-17; Id., “Saving Ecumenism from Itself”, *First Things* 178(December/2007), 23-27. 그리고 Id., “The Sacramental Ecclesiology of *Lumen Gentium*”, *Gregorianum*(이하 *Gr*) 86, 3(2005), 550-562.

15) Cf. A. Dulles, “What Hopes and What Misgivings Do You Entertain Regarding The Currently Emerging Religious Dialogue in America?: An Exchange of Views among Christian Writers”, *America* 104(14 January/1961), 461. 또한 cf. Id., “Protestants and Catholics in Germany”, *America* 100(January 24/1959), 494. 이 시기에 덜레스는 “대교구 발티모어 그리스도교 일치 위원회(the Archdiocese of Baltimore’s Commission on Christian Unity)”(1962-1970)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256-257), “미국 내 루터교 로마 가톨릭 대화”(the United States National Lutheran-Roman Catholic Dialogue)(1971)와 “미국 성공회-로마 가톨릭 협의회”(the Anglican-Roman Catholic Consultation in the United States)의 구성원으로서도 활약한다. 그는 1971년,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국제 교회 협회 신앙과 직제의 루벵에서의 만남(World Council of Churches’ Faith and Order meeting at Louvain)”에 참여한다(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260-261). 또한 1974년 덜레스는 “교황청 수위권과 보편교회”(Primato pontificio e chiesa universal)(1974)라는 주제로 “루터교 로마 가톨릭교 연합문서”(the Lutheran-Roman Catholic Joint Statements)의 본문을 작성하는 데에 참여한다(Cf. Commissione Cattolica - Luterana negli USA, Dichiarazione comune *Primato pontificio e chiesa universale*(5 marzo 1974); 영어 원문, *Papal Primacy and the Universal Churc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 in *Enchiridion Oecumenicum*(이하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2; Dialoghi locali 1965-1987*, Bologna, 1988, 1354-1376]. 더 나아가 1978년 “가르치는 권위와 교회의 무류성(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시기에 진행되었던 덜레스의 ‘보편적 계시 신학’ 역시 에큐메니즘과 함께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1964년의 “Theology of Revelation”¹⁶⁾과 1966년의 “Symbol, Myth, and The Biblical Revelation”, 그리고 1968년의 저서 *Revelation and the Quest for Unity*¹⁷⁾에서, 그는 ‘낙천적인’¹⁸⁾ 가톨릭 신학의 에큐메니컬 계시 신학에 몰두한다. 특별히 후자의 저서를 통해서 덜레스는 교회의 가톨릭성을 상징하는 심볼의

Church)”의 위원회로서 참여한다[Cf. Gruppo di dialogo cattolico - Luterano in USA, Dichiarazione comune *Autorità magisteriale e infallibilità nella chiesa*(settembre/1978); 영어 원문,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à in the Churc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 in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2; Dialoghi locali 1965-1987*, Bologna, 1988, 1377-1454]. “의화”(Justification, 1983)에 대한 문서 작성 역시 빠질 수 없이 덜레스의 활약이다[Cf. Commissione Cattolica - luterana negli USA, *Giustificazione per fede*(1983); 영어 원문, *Justification by Fait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in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2; Dialoghi locali 1965-1987*, Bologna, 1988, 1455-1558]. 더 나아가 덜레스는 “성공회 로마 가톨릭 선언”(the Anglican-Roman Catholic statement)에서 “교의적 동의와 그리스도교 일치”(Doctrinal Agreement and Christian Unity, 1972)라는 문서 작성에도 기여한다[Cf. Consulta Anglicana - cattolica negli USA, *Accordo dottrinale e unità cristiana: considerazioni metodologiche 23*(gennaio/1972); 영어 원문, *Documents on Anglican Roman Catholic Relations II*, in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2; Dialoghi locali 1965-1987*, Bologna, 1988, 1026-1031]. 이밖에도 “세례, 성찬례, 그리고 직무”(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라는 주제를 연구하며 “세계 교회 협의회 스터디 페이퍼”(World Council of Churches’ study paper) 작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신앙과 직제의 리마 회의”(Faith and Order Conference in Lima, Peru)의 서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Cf. A. Dulles, “Toward a Christian Consensus: The Lima Meeting”, *America* 146(27 February/1982), 126-129; Id., “Lima Text”, in *New Catholic Encyclopedia*(이하 NCE) vol.8[Reprint: In second edition, 2002], 588-590; Commissione Fede e Costituzione del Consiglio ecumenico delle chiese, “Documento di Lima” *Battesimo, eucaristia, ministero*(Lima, 1982); 영어 원문,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111, Ginevra, 1982), in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1; Dialoghi internazionali 1931-1984*, Bologna, 1986, 1391-1447].

16) Cf. A. Dulles, “The Theology of Revelation”, *Theological Studies*(이하 TS) 25(March/1964), 44-47. 또한 Cf. Id., “Book review: *Gesù Cristo Rivelazione di Dio. Il tema negli ultimi decenni della teologia cattolica*, by T. Citrini” TS 32(January/1971), 336-338; Id., “Theological Table-Talk”, *Theology Today*(이하 ThTo) 24(October/1967), 365.

17) Cf. A. Dulles, “Symbol, Myth, And The Biblical Revelation”, TS 27(March/1966), 1-26; Id., *Revelation: And The Quest For Unity*, Wahington-Cleveland, 1968.

18) Cf. A. Dulles, “Contribution to a Round Table: Where Are We in Ecumenism?”, *America* 126(January 22/1972), 55.

구조를 통해서 제시된 성사로의 교회에 집중하면서 교도권을 이해한다.¹⁹⁾

또한 이 시기에 덜레스는 H. Küng, J. Guitton, G. Tavard, M. Thurian, A. Bea, J. Knox와 같은 다양한 신학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자신의 에큐메니컬 신학을 전개시켜 나간다. “Review of The Council, Reform and Reunion”²⁰⁾과 “Review of The Church and the Gospel”,²¹⁾ 그리고 “Review of Paul Tillich and The Christian Message”²²⁾ 더 나아가 “Review of Visible Unity and Tradition”²³⁾ “Review of The Church and the Reality of Christ” “Review of The Unity of Christians”²⁴⁾ 등의 아티클이 이러한 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덜레스로

19) Cf. A. Dulles, *Revelation and The Quest for Unity*, 90: Id., “The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in Ecumenical Perspective”, *AECR* 154(April/1966), 224.

20) Cf. A. Dulles, “Review of *The Council, Reform and Reunion*, by Hans Küng”, *America* 106(31. March/1962), 861~862.

21) Cf. A. Dulles, “Review of *The Church and the Gospel*, by Jean Guitton”, *TS* 23(June/1962), 300~301.

22) Cf. A. Dulles, “Review of *Paul Tillich and the Christian Message*, by George H. Tavard”, *TS* 23(December/1962), 676~678; Id., “Paul Tillich and the Bible”, in T. O’Meara - C. Weisser, ed., *Paul Tillich in Catholic Thought*, Dubuque, Iowa, 1964, 109~132. 덜레스는 톨리히 신학을 따르면서 인간 역사 전체는 ‘심볼’인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집중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현존을 가시적이고 물질적 요소들 안에서만 파악한다고 가톨릭신학을 왜곡시켜 해석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말씀과 성사 그리고 제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현재성을 심도 깊게 고찰한다. 이밖에도 가톨릭의 가시적 중재성의 원칙과 프로테스탄트의 비평적 원칙의 조화를 제안한다. 왜곡된 가톨릭의 가시적 중재성의 원칙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길로 치달을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이고, 왜곡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은 지나친 비평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의주의로 치달게 하기 때문이다. Cf. Id.,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3~8.

23) Cf. A. Dulles, “Review of *Visible Unity and Tradition*, by Brother Max Thurian”, *America* 108(19. January/1963), 109. 덜레스는 저자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칭송하는데, 왜냐하면 저자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는 데에 예외가 될 수 없고, 화해를 향한 희망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24) Cf. A. Dulles, “Review of *The Church and the Reality of Christ*, by John Knox”, *TS* 24 (March/1963), 132~134 그리고 Id., “Review of *The Unity of Christians*, by Augustin Cardinal Bea”, *TS* 24(December/1963), 700~701.

하여금 다음의 두 작품 *The Dimensions of the Church*(1967)와 *Revelation and the Quest for Unity*(1968)²⁵⁾를 출판하도록 이끈다.

이 시기 딜레스의 에큐메니즘은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개방형적 교회론’을 향하여 확대된다. 1965년의 아티클 “Correspondence: a Different Reading”²⁶⁾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된 에큐메니컬 주제들을 심화시키는데, 그의 자서전 *A Testimonial to Grace*에서 드러나듯이, Woodstock College의 구성원들이었던 Gustave Weigel과 John Courtney Murray(1904~1967)는 애버리 딜레스의 개방된 교회론에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²⁷⁾ 딜레스의 저서 *The Dimensions of the Church*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상 심도 깊게 해석하면서 네 가지 신학적 측면들(높이, 깊이, 길이, 넓이)을 통해서 ‘교회의 삼중적 대화’(‘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의 대화’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과의 대화’)를 다룬다.²⁸⁾ 이러한 자료들은 1985년도의 작품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에서 ‘교회의 가톨릭성’에 대한 신학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서 벌써부터 자리 잡았던 것이다. 계시 신학도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는데, 특별히 아티클 “The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in Ecumenical Perspective”²⁹⁾는 공의회에 에큐메니

25) Cf. A. Dulles, *The Dimensions of the Church: A Postconciliar Reflection*, Westminster, 1967; Id., *Revelation and the Quest for Unity*, Washington-Cleveland, 1968.

26) Cf. A. Dulles, “Correspondence: A Different Reading”, *Commonweal*(이하 *Comm*) 81(22 January/1965), 530-531.

27) Cf. A. Dulles, *A Testimonial to Grace*(1996), 104-109.

28) Cf. A. Dulles, *The Dimensions of the Church*, 1.6-8.13.87-111. 그의 1967년 저서 *The Dimensions of the Church*를 출판하기 전에, 1966년 딜레스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G. C. Berkouwer(1903-1996)의 작품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cf. A. Dulles, “Review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New Catholicism* by G. C. Berkouwer”, *TS* 27(June/1966), 305-307] 즉, Berkouwer는 ‘가톨릭시즘’ 안에서, 법률적인 차원 대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려는 ‘그리스교의 가톨릭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자는 그의 작품에서 “개방된” 가톨릭시즘과 “폐쇄된” 가톨릭시즘을 구분하면서 에큐메니컬 신학을 전개시킨다. 또한 cf. A. Dulles, “The Changing Nature of Mission”, *AECR* 157(July-December/1967), 366-372 그리고 G. C. Berkouwer, *Studies In Dogmatics: The Church*, Michigan, 1967, 105-198.

29) Cf. A. Dulles, “The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in Ecumenical Perspective”, *AECR*

즘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계시현장(Dei Verbum)과 계시에 대한 전통적인 호교론을 새롭게 조화시켰다.³⁰⁾ 더 나아가 딜레스는 다음의 네 저서를 통해서 ‘원천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시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예큐메니즘의 향방 안에서 고찰한다. 1963년에 *Apologetics and the Biblical Christ*³¹⁾를 출판하는데, 저서는 신약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을 묘사하면서, 역사의 예수에 대한 후기 불트만 학파 신학자들의 공통된 신학적 입지를 분석하고 결국 예수 부활에 대한 재구성을 신앙의 경계 안으로만 축소시키는 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거부한다.³²⁾ 두 번째와 세 번째 저서는 *Revelation Theology*와 *A History of Apologetics*³³⁾인데, 여기서 딜레스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기준을 관통하며 시대의 변화와 가치에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진 상황 안에서 원천적인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해석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신학적 경향을 이루면서 *Revelation Theology*에서 딜레스는 특별히 Paul Tillich(1886~1965)³⁴⁾와 Karl Rahner(1904~1984)의 사상으로부터의 얻은 개방된 방법론에 의존하면서도 본래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으로 돌아간다.³⁵⁾ 네 번째 작품은 1968년과 1970년 사이의 발표된 아티클과 다양한 강의로 편집된 *The Survival of Dogma*(1971)이다.³⁶⁾ 이 작품에서 딜레스는 신앙의 “형상”(Gestalt)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고 “재형성”(Wiedergewinnung)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변화하는 역사-문화의 상황을 관통하면서 그리스도교의 교의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된 주제로 다루

154(March/1966), 217~231.

30) Cf. A. Dulles, “Umriss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5; Id., *The Church*, in William M. Abbott, ed., *Documents of Vatican II*, New York, 1966, 9-13 그리고 A. Dulles, “The Orthodox Churches and the Ecumenical Movement”, 38-54.

31) Cf. A. Dulles, *Apologetics and the Biblical Christ*, Westminster, 1967.

32) Cf. A. Dulles, “Umriss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5.

33) Cf. A. Dulles, *Revelation Theology: A History*, New York, 1969; Id., *A History of Apologetics*, New York, 1971.

34) Cf. A. Dulles, “Paul Tillich and the Bible”, *TS* 17(September/1956), 345~367.

35) Cf. A. Dulles, “Umriss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6.

36) Cf. A. Dulles, *The Survival of Dogma*, New York, 1971.

는 텔레스에게³⁷⁾ 좀 더 중요한 신학적 물음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요소와 부합되면서도 그리스도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시되는 교회의 일치성은 어느 한계에까지 허용되는가?’³⁸⁾ 결국 텔레스는 각각의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고백하는 다양한 신앙고백들 자체가 바로 복음의 보편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통일성의 표식”이라고 선언한다.³⁹⁾ 같은 이유에서 1972년 아티클 “Reflections on Doctrinal Agreement”는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하나의 참된 다원주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한다.⁴⁰⁾ 이렇듯 ‘교회의 다원주의’로부터 에큐메니컬 신학을 출발한 텔레스는 이제 1974년의 작품 *Models of the Church*⁴¹⁾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관계성의 폭넓은 몸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⁴²⁾ 작품은 교회의 다섯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성경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를 심도 깊게 연구한다. 교회 내외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어떤 형식적인 교의적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데, 다양하고도 상이한 신학적 입지들은 각각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형성된 그리스도교 특유의 고찰이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⁴³⁾

37) Cf. A. Dulles, “Dogma as An Ecumenical Problem”, *TS* 29(September/1968), 410-416. 그리고 Id., “Review of Dogma in Geshichte: Versuch einer Kritik des Dogmatismus in der Glaubensdarstellung, by Josef Nolte”, *TS* 34(June/1973), 303-304; Id.,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88.

38) Cf. A. Dulles, “Umrisse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6-57.

39) Cf. A. Dulles, *The Survival of Dogma*, 169-170.

40) Cf. A. Dulles, “Reflections on Doctrinal Agreement”, in H. J. Ryan and J. R. Wright, ed., *Episcopalians and Roman Catholics: Can They Ever Get Together?*, Denville, NJ., 1972, soprattutto, 51.

41) Cf. A. Dulles, *Models of the Church*, Garden City; New York, 1974; 이탈리아어판, da Luigi dal Lago, *Modelli di Chiesa*, Padova, 2005.

42) Cf. A. Dulles, “Dogma as An Ecumenical Problem”(1968), 416 또한 Id., “What Hopes and What Misgivings Do You Entertain Regarding the Currently Emerging Religious Dialogue in America?": An Exchange of Views among Christian Writers”, *America* 104(14 January/1961), 461; Id., “Review of *The Case against Dogma*, by Gerald O’Collins”, *TS* 37(March/1976), 148.

43) Cf. A. Dulles, “Umrisse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7.

2.2. 두 번째 시기(1974~1988)

두 번째 시기는 덜레스가 Washington의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14년간 조직 신학의 교수로서(1974~1988) 재직할 때까지의 기간이다.⁴⁴⁾ 이 시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구히 활동하시는 성령께 대한 믿음”⁴⁵⁾ 안에서, 에큐메니즘에 대한 원칙과 목표 그리고 방법론에 주력한다.⁴⁶⁾ 예를 들어서, 1973년의 “Ten Principles of Ecumenism”과 1980년의 “Ecumenism and Theological Method” 그리고 1986년의 “Paths of Doctrinal Agreement: Ten Theses”에서,⁴⁷⁾ 덜레스는 좀 더 실제적인 에큐메니컬 원칙을 제시하면서 교회 일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더 나아가 그의 아티클 “Ministry and Intercommunion: Recent Ecumenical Statements and Debates”(1973)과 “Ius Divinum as an Ecumenical Problem”(1977)⁴⁸⁾뿐만 아니라 “What Belongs in a Future Ecumenical Creed? A Catholic Answer”(1978)와 “Toward a Mutual Recognition of Ministries”(1983)⁴⁹⁾는 에큐메니즘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과 그 치유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이 시기에 덜레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서서⁵⁰⁾ 에큐메니컬 신학을 심화시킨다.⁵¹⁾ 다음과

44) Cf. D. Hercsik, “Avery Dulles: Teologo e Cardinale”, 357~358.

45) Cf. A. Dulles, “Faith and New Opinions”, *America* 117(October 28/1967), 479.

46)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51.

47) Cf. A. Dulles, “Ecumenism and Theological Method”, *JES* 17(winter/1980), 40~48; Id., “Paths to Doctrinal Agreement: Ten Theses”, *TS* 47(March/1986), 32~47.

48) Cf. A. Dulles, “Ministry and Intercommunion: Recent Ecumenical Statements and Debates”, *TS* 34(December/1973), 643~678; Id., “*Ius Divinum* as An Ecumenical Problem”, *TS* 38(December/1977), 681~708.

49) Cf. A. Dulles, “What Belongs in A Future Ecumenical Creed? A Catholic Answer”, *Concilium: Religion In the Seventies* 118(New York, 8/1978), 77~81; Id., “Toward a Mutual Recognition of Ministries”, *Dialog* 22(Spring/1983), 106~113.

50)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61~63.

51) 덜레스의 아티클 “*Ius Divinum as An Ecumenical Problem*” [*TS* 38(December/1977), 681]은 ‘신적 법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한다. 여기서 덜레스는 하느님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전승되어온 전승과 전통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고 확신한다. 또한 Cf. Id., “Ecumenism: Problems and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in D. Tracy with H. Küng

같은 아티클 “Doctrinal Authority for a Pilgrim Church”(1977)와⁵²⁾ “Che cosa dovrà confessare un futuro credo ecumenico?: Una risposta cattolica”(1978)⁵³⁾, “Authority and Obedience — The Vatican II Revolution (II)”(1982)⁵⁴⁾ 그리고 “Canadian Agreed Statement on Infallibility: A Theological Reflection”(1982),⁵⁵⁾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1986)⁵⁶⁾와 “Sensus Fidelium”(1986)⁵⁷⁾에서, 덜레스는 가톨릭 전승과의 연속성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는 교회의 쇄신을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에큐메니즘을 의식하면서 ‘교황에 대한 주제’와 ‘주교단’ 그리고 ‘하느님 백성’ 등을 다룬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덜레스의 중요한 에큐메니컬 활동 가운데 하나는, “Hartford Appeal”⁵⁸⁾로

and J. B. Metz, ed., *Toward Vatican III;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New York, 1978, 91~10; Id., “Jewish – Christian Relations Since Vatican II: Problems and Prospects”, *The Catholic Mind*(이하 *CMind*) 74(March/1976), 43~54; Id., “What Belongs in A Future Ecumenical Creed?: A Catholic Answer”(1978), 77~81; Id., “Toward a Christian Consensus: The Lima Meeting”, *America* 1406(February/1982), 126~129.

52) Cf. A. Dulles, “Doctrinal Authority for A Pilgrim Church”, in C. Curran – R. McCormick, *Readings in Moral Theology* No.3: The Magisterium and Morality, New York, 1977, 247~270.

53) Cf. A. Dulles, “Che cosa dovrà confessare un futuro credo ecumenico?: Una risposta cattolica”, *Concilium: Rivista internazionale di teologia* 14(fascicolo 8/1978), 122~127[프랑스어판, “Une Réponse Catholique”, *Concilium: Revue internationale de théologie* 138(Paris, 1978), 101~105].

54) Cf. A. Dulles, “Authority and Obedience – The Vatican II Revelation(II)”, *The Tablet* 236(18 December/1982), 1264~1265.

55) A. Dulles, “Canadian Agreed Statement on Infallibility: A Theological Reflection”,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이하 *JES*) 19(Winter/1982), 85; 89~90. 여기서 덜레스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교도권과 무류성에 대한 미국 루터교-가톨릭 교회의 문서(the U. S. Lutheran-Catholic Statement on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Church)”를 다룬다. 베드로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약속되고 보존된 교회의 무결점성(indefectibility)을 제시하는 가톨릭의 입장과 무결점성은 허락하지만 무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루터교를 대조적으로 소개하며 고찰한다. 결국 양측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좀 더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 맺는다.

56) Cf. A. Dulles,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Concilium: Religion in the Eighties* 188(Edinburgh, 6/1986), 7~11.

57) Cf. A. Dulles, “Sensus Fidelium” *America* 155(November 1/1986), 240~242, 263.

58) 신학 잡지 *Origins*은 이 문서를 “The Church Today/A Challenge to Popular Notions”라는 제목으로 [*Origins* 4(February 6/1975), 522~523] 출판하였다. 1975년 Richard John Neuhaus와 Peter L. Berger의 초대로 18명의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학자들은 미

서 좀 더 공통적으로 알려진 “An Appeal for Theological Affirmation”의 편집 활동에 대한 참여였다. 그의 아티클 “Unmasking Secret Infidelities”(1976)에서, 딜레스는 Hartford 호소문의 서명자들은 어떤 교의-형식적인 교회의 일치운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시작으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설명한다.⁵⁹⁾ 특별히 저서 *The Resilient Church*는 딜레스 자신을 로만 가톨릭의 Hartford 대변인으로 제시하며⁶⁰⁾ “Hartford Appeal”은 새로운 에큐메니즘은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커다란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⁶¹⁾ 이제 에큐메니즘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세속화의 요소들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당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번영과 가치를 승진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 내에서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도록 인도한다.⁶²⁾

또한 이 시기에 제시된 ‘교도권의 권위에 대한 주제’는 에큐메니즘과 교회의 내적 쇄신과의 연결 선상에서 고찰된다.⁶³⁾ 사실 60년

국 Hartford, Connecticut에서 모임을 열었는데, 이들은 각 교파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표자들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들 자신의 신학적 관심에 따라 모였다. “신학 선언을 위한 호소”(The Appeal for Theological Affirmation)는 총 13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져야 할 다양한 주제들을 고찰한다. Cf. A. Kirmse, *The Church and the Churches*, 43~46.

59) Cf. A. Dulles, “Hartford and the Future of Ecumenism: Unmasking Secret Infidelities”, in P. Berger – R. Neuhaus, ed., *Against the World for the World; The Hartford Appeal and the Future of American Religion*, New York 1976, 44-62. 인용은 47.

60) Cf. A. Dulles, “Chapter IV; *The Critique of Modernity and the Hartford Appeal*”, in *The Resilient Church: The Necessity and Limits of Adaptation*, New York, 1977, 63~92.

61) A. Dulles, “Hartford and the Future of Ecumenism: Unmasking Secret Infidelities”, 45.

62) Cf. A. Dulles, “Finding God and the Hartford Appeal”, *America* 132(May 3/1975), 334; Id., “The Ecumenical Movement is in Trouble”, *The Lamp* 66(April/1968), 32.

63)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60-61. 또한 다음의 딜레스의 작품들 Cf. A. Dulles, “The Succession of Prophets in the Church”, *Concilium: An International Review of Theology* 34(London, April/1968), 28-32[프랑스어판, “La Succession des Prophètes dans l’Église”, *Concilium: Revue Internationale de Théologie* 34(1968), 51-59; 이탈리아어판, “La Successione dei Profeti nella Chiesa”, *Concilium: Rivista Internazionale di Teologia* 4(Fascicolo 4/1968), 65-75; 독일어판, “Die Sukzession der Propheten in der Kirche”, *Concilium: International Zeitschrift für Theologie* 4(Benziger/Grünwald, April/1968), 259-263];

대 후반부터 덜레스는 ad intra의 차원인 교회 내적 쇄신에 몰두하는 데,⁶⁴⁾ 예를 들자면, 1979년의 “Bible in the Church: Some Debated Questions”, 1981년의 “Successio apostolorum — Successio prophetarum — Successio doctorum” “Teaching Authority and The Pastoral Office” 그리고 1982년의 “The Authority of Scripture: A Catholic Perspective”⁶⁵⁾는 복잡 다양한 세속화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교도권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한다.⁶⁶⁾ 더 나아가 그는 “루터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Lutherans and Roman Catholic Dialogue)의 구성원으로서(이 활동은 1971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진다)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과 무류성 그리고 교황의 으뜸 수위권에 대해서 연구한다.⁶⁷⁾ 1978년의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Id., “The Contemporary Magisterium”, *Theology Digest*(이하 *ThD*) 17(Winter/1969), 304-307; Id., “The Magisterium and Authority in the Church”, in George Devine, ed., *Proceedings of the College Theology Society: Theology in Revolution*, N.Y., 1970, 29-45; Id., *The Survival of Dogma*, 95-107; Id., “Roles of Bishops & Theologians: What is Magisterium?”, *Origins* 6(July 1/1976), 81-88; Id., “Presidential Address: The Theologian and The Magisterium”, *Proceedings of the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of America*(이하 *PCTSA*) 31(June 9-12/1976), 235-246; Id., “Doctrinal Authority for A Pilgrim Church”, in *The Resilient Church*, 93-112; Id., “Magisterium in History: A Theological Relection” 그리고 “The Two Magisteria: An Interim Reflection”, in *A Church to Believe In*, 103-117, 118-132.

64) Cf. A. Dulles, *The Resilient Church*, 105; Id., “The Two Magisteria: An Interim Reflection”, *PCTSA* 35(June 11-14/1980), 155-169.

65) Cf. A. Dulles, “Bible in the Church: Some Debated Questions”, in G. Martin, ed., *Scripture and the Charismatic Renewal*, Ann Arbor, 1979, 5-27; Id., “Successio apostolorum — Successio prophetarum — Successio doctorum”, *Concilium: Religion in The Seventies* 148(New York) (8/1981), 61-67[프랑스어판, “La Triple Succession: Apôtres, Prophètes et Docteurs”, *Concilium: Revue Internationale de Théologie* 168(1981), 109-118; 이탈리아어판, “La Triplice Successione: Apostoli, Profeti e Dottori”, *Concilium: Rivista Internazionale di Teologia* (fascicolo 8/1981), 124-136; 독일어판, “Zu einer alten Kontroverse: Die dreifache Sukzession: Apostel, Propheten, Lehrer”, *Concilium: International Zeitschrift für Theologie* 17(Oktober/1981), 663-668]; Id., “Teaching Authority and The Pastoral Office”, *Dialog* 20(Summer/1981), 212-216; 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A Catholic Perspective”, in E. Frederick, ed., *Scripture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Authority, Interpretation, Relevance*, Abingdon; Nashville, 1982, 13-40.

66) Cf. A. Dulles, *The Resilient Church*, 65-66.

67)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349-390.

Church”는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에큐메니컬 문서이다.⁶⁸⁾ 특별히 ‘교황권’에 대한 주제는 루터교-로마가톨릭 교회의 에큐메니컬 대화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후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에 덜레스의 교회론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1977년의 저서 *The Resilient Church*⁶⁹⁾는 이를 잘 말해 준다. 이전에 저술하였던 덜레스의 다양한 아티클들 즉 “The Contemporary Magisterium”(1969)⁷⁰⁾과 “Infallibility Revisited”(1973),⁷¹⁾ “The Papacy: Bond or Barrier?”(1974)⁷²⁾ 그리고 “What is Magisterium?”(1976)과⁷³⁾ “Papal Authority in Roman Catholicism”(1976)⁷⁴⁾을 종합하는 저서 *The Resilient Church*는 에큐메니즘과 관계 맺는 교도권에 대한 덜레스의 지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후 저술된 “Moderate Infallibilism”(1978)과⁷⁵⁾ “The Magisterium in History”(1983)⁷⁶⁾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되었던 ‘법률 중심적인 교황권’에 대한 선언(신적 법률권과 무류성 그리고 보편적 재치권)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에큐메니컬 교회론 안에서 해설한다. 여기서서는 전승의 역사를 살아가는 “신앙의 생생한 공동체”(living community of faith)⁷⁷⁾를 주제로 삼으면서 교황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

68) Cf. Paul C. Empie, T. Austin Murphy, and Joseph A. Burgess, ed.,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Churc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 (Minneapolis: Augsburg, 1980), 38-40[이탈리어판; Gruppo di dialogo cattolico-Luterano in USA, Dichiarazione comune *Autorità magisteriale e infallibilità nella chiesa*(settembre 1978), in *EO: Documenti del dialogo teologico interconfessionale 2; Dialoghi locali 1965-1987*, Bologna, 1988, 1377-1454]; 또한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350.

69)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281-289.

70) Cf. A. Dulles, “The Contemporary Magisterium”, *ThD* 17(Winter/1969), 299-311

71) Cf. A. Dulles, “Infallibility Revisited”, *America* 129(August 4/1973), 55-58.

72) Cf. A. Dulles, “The Papacy: Bond or Barrier?”, *CMind* 72(September/1974), 45-59.

73) Cf. A. Dulles, “What is Magisterium?”, *Origins* 6(1. July/1976), 81-88.

74) Cf. A. Dulles, “Papal Authority in Roman Catholicism”, in Peter J. McCord, ed., *A Pope for all Christians? An Inquiry into the Role of Peter in the Modern Church*, New York; Paramus; Tronto, 1976, 48-70.

75) Cf. A. Dulles, “Moderate Infallibilism”, in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Church: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 81-100.

76) Cf. A. Dulles, “The Magisterium in History: A Theological Perspective”, *Theological Education*(이하 *ThEd*) 19(Spring/1983), 7-26[또한 cf. Id., “The Magisterium in History: A Theological Reflection”, *Chicago Studies*(이하 *ChiSt*) 17(Summer/1978), 264-281, 103-117].

모하는데, 결국 가톨릭 교회의 심볼적 구조 안에서 ‘교황’은 교회의 내적 쇄신(ad intra)의 장소이자 ‘세상과 분열된 그리스도교 인물’이라는 ‘외부’를 향해 서 있는(ad extra) 에큐메니즘을 위한 초대적 장소라고 선언한다.⁷⁸⁾ 또한 이 시기에 탈레스는 ‘가톨릭 교회의 심볼적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주교회의’ 신학을 전개시키는데 그의 아티클 “Authority: the Divided Legacy”(1985)⁷⁹⁾와 “Bishops’ Conference Documents: What Doctrinal Authority?”(1983),⁸⁰⁾ 그리고 “The Teaching Authority of Bishops’ Conferences”(1985),⁸¹⁾ “What is the Role of a Bishops Conference?”(1988)⁸²⁾와 “The Mandate to Teach”(1988)⁸³⁾ 그리고 “Doctrinal Authority of Episcopal Conferences”(1989)⁸⁴⁾는 교황과 주교단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지닌 ‘심볼의 구체성’을 잘 말해준다.

탈레스에게 있어서 ad Intra 차원에서 제기된 인격주의적 교회의 쇄신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으로부터 유래한다.⁸⁵⁾ 사실

77) Cf. A. Dulles, *Models of Revelation*, 144; Id., “Faith and Revelation”, in F. S. Fiorenza and J. P. Galvin, *Systematic Theology: Roman Catholic Perspectives I*, Minneapolis, 1991, 94.120.

78) Cf. D. Vitali, “Chiesa universal e chiesa locale: Un’armonia raggiunta?”, in Marco Vergottini (a cura di), *Associazione Teologica Italiana: La Chiesa e Il Vaticano II; Problemi di ermeneutica e recezione conciliare*, Milano, 2005, 271.

7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20주년을 기념하는 1985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의 쇄신을 위한 특별 시노드를 지시하였을 때, 탈레스는 아티클 “Charting a Course: From the Council to the Synod. Authority: The Divided Legacy”(Comm 112(12 June/1985), 400~403)를 저술한다. Cf. Id., “The Extraordinary Synod: IV”, *America* 153(September 28/1985), 156~158.

80) Cf. A. Dulles, “Bishops’ Conference Documents: What Doctrinal Authority?”, *Origins* 14 (January 24/1985), 528~534.

81) Cf. A. Dulles, “The Teaching Authority of Bishops’ Conferences”, *America* 148 (11.June/1983), 453~455.

82) Cf. A. Dulles, “What Is the Role of a Bishops Conference?”, *Origins* 17(April/1988), 789~796.

83) Cf. A. Dulles, “The Mandate to Teach”, *America* 158(19 March/1988), 293~295.

84) Cf. A. Dulles, “Doctrinal Authority of Episcopal Conferences” in Thomas J. Reese, *Episcopal Conference: Historical, Canonical and Theological Studies*, Washington D.C., 1989, 207~231.

85)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63~64. 2000년도에 탈레스

교황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들어 높이는 신학을 ‘사랑과 대화’라는 방법론 안에서 모색하였던 것이다. 덜레스는 1988년의 아티클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⁸⁶⁾를 저술하는데, 여기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개념들 즉 “personalist” “participatory” “communal” “dynamic” “open” “dialogic” “pluralistic”⁸⁷⁾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인격적 개념을 바탕으로 1982년 아티클 “La Chiesa: sacramento e fondamento della fede”⁸⁸⁾는 교계와 평신도들 사이의 관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고무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해한다.⁸⁹⁾ 가톨릭 교회 내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주제는 1987년에 새롭게 출간한 그의 저서 *Models of the Church*에서(특히 제13장) 강조된다.⁹⁰⁾ 여기서, 이미 아티클 “The Succession of Prophets in the Church”(1968)⁹¹⁾이 제시하였듯이, 직무 자체의 제도적인 측면과 교회 내 은사 사이의 긴장 관계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직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는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격주의 신학에 주력한다. Cf. A. Dulles, *The Splendor of Faith: The Theological Vision of Pope John Paul II*, vii; Id., “The Enrichment and Transmission of Faith in the Theology of John Paul II”, in Joseph W. Koterski and John J. Conley, ed., *Creed and Culture: Jesuit Studies of Pope John Paul II*, Philadelphia, 2004, 8-9; Id., “The Theologian”, *America* 192(April 18/2005), 20-21.

86) Cf. A. Dulles,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3-13.

87) Cf. A. Dulles,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11; Id., “Vatican II and the Church’s Purpose”, *ThD*(Winter/1985), 341-352.

88) Cf. A. Dulles, “La Chiesa: sacramento e fondamento della fede”, in René Latourelle e Gerald O’Collins, ed., *Problemi e Prospettive di Teologia Fondamentale*, Brescia, 1982, 319-337.

89) Cf. A. Dulles, “Vatican II and the Church’s Purpose”, 341-352; Id.,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11-13 그리고 A. Dulles, “Imaging the Church for the 1980’s”, 137-138; Id., “Discipleship”, in M.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이하 *EnRe*) vol.4, New York, 1987, 361-364.

90) 덜레스는 1974년에 첫 출판된 *Models of the Church*(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에 덧붙여 제13장 “제자들의 공동체”와 “부록: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론”을 전개시키면서 1987년 판 *Models of the Church* 저서를 새롭게 완성한다[이탈리아어판, da Luigi dal Lago, *Modelli del chiesa*, Edizioni Messaggero, Padova, 2005, 241-267. 269-293].

91) Cf. A. Dulles, “The Succession of Prophets in the Church”, 30-32.

다.⁹²⁾ 이러한 흐름은 1982년도의 또 다른 저작 *A Church to Believe In* 에서도 나타난다. 곧 참된 제자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의 미션 사명 그 자체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한다.⁹³⁾ 이러한 고찰은 결국 탈레스로 하여금 에큐메니컬 방법론 안에서 ‘교회의 가톨릭성’이라는 주제에 매진하도록 이끌었다.⁹⁴⁾ 아티클 “El Dilema Moderno de la Fe”(1970)와⁹⁵⁾ “Dilemmas Facing the Church in the World” 그리고 “How can Christian Faith be Justified Today?”(1975)⁹⁶⁾와 “Revelation and Discovery”(1980)⁹⁷⁾에서 제시된 주제를 종합하는 탈레스의 저서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1985)⁹⁸⁾와 *The Reshaping of Catholicism: Current Challenges in the Theology of Church*(1988)⁹⁹⁾ 그리고 1984년의 아티클 “The Essence of Catholicism: Protestant and Catholic Perspectives”¹⁰⁰⁾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발산해야 하는 ‘가톨릭성’을 ‘중재되고 화해된 다양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해석한다.¹⁰¹⁾ 탈레스는 더 나아가 가톨릭성의 이러한 포용력을 ‘복음화로 변형되는 다양한 종교와 정치’라는 주제와 결부시키면서 복

92) Cf. A. Dulles, *Modelli di chiesa*, 241~266. 제도적 요소와 은사의 요소에 대해서 cf. Id., “Earthen Vessels: Institution and Charism in the Church”, in Thomas E. Clarke, ed., *Above Every Name: The Lordship of Christ and Social Systems*, New York, 1980, 168~181; Id., *A Church to Believe In*, 29~40.

93) Cf. A.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 Discipleship and the Dynamics of Freedom*, New York, 1982, x; Id., *Modelli di chiesa*, 260~262.

94)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126.

95) Cf. A. Dulles, “El Dilema Moderno de la Fe”, in *Colección «Teología Y Mundo Actual»* 20: *Hacia una Teología de La Fe Católica*, Santander, 1970, 19~40.

96) Cf. A. Dulles, “Dilemmas Facing the Church in the World”, *Origins* 4(February 20/1975), 548~551; Id., “How can Christian Faith be Justified Today?”, *Communio: International Catholic Review*[이하 *Com(US)*] 2(Winter/1975), 343~356.

97) Cf. A. Dulles, “Revelation and Discovery”, in W. Kelly, ed., *Theology and Discovery: Essays in Honor of Karl Rahner, S.J.*, Milwaukee, 1980, 1~29.

98) Cf. A. Dulles,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Oxford, 1985.

99) Cf. A. Dulles, *The Reshaping of Catholicism*, San Francisco, 1988.

100) Cf. A. Dulles, “The Essence of Catholicism: Protestant and Catholic Perspectives”, *Thomist*[이하 *Thom*] 48(October/1984), 607~633.

101) 또한 Cf. A. Dulles, “Catholicity”, in Joseph A. Komonchak, ed., *The New Dictionary of Theology*[이하 *NDT*], Collegeville; Minnesota, 1987, 172~174.

음 신포의 비전을 넓혀 나간다.¹⁰²⁾ 그에게 있어서 ‘가톨릭의 포용력’을 유용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다양한 모델들의 방법론을 통해서였다. 다양한 모델들은 교회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서도 유용하게 적용되었다.¹⁰³⁾ 1980년도 아티클 “The Symbolic Structure of Revelation”¹⁰⁴⁾과의 연속선상에서 델레스는, 저서 *Models of the Church*(1974)의 구성을 새롭게 전제하면서 *Models of Revelation*(1983)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작품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델들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신학에 까지 큰 영향력을 끼친다.

특별히 이 시기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 ‘교회의 가톨릭성’에 대한 연구는 델레스로 하여금 “신앙의 살아있는 공동체”¹⁰⁵⁾ 안에서 가톨릭리즘과 대면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신학적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인도한다.¹⁰⁶⁾ 특별히 아티클 “The Catholicity of the Augsburg Confession”¹⁰⁷⁾은 루터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추구되는 ‘가톨릭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다.¹⁰⁸⁾ 어떤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대신 양측은 참된 교회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전승(Tradition)의 징표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같은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델레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따르면서, 아우구스부르크

102) Cf. A. Dulles, “The Gospel, The Church and Politics”, *Origins* 16(February 19/1987), 641-644; Id., “Relig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s”, *America* 167(October 24/1992), 296-301.

103) Cf. D. Herscik, “Avery Dulles: Teologo e Cardinale”, 369. 또한 cf. A. Dulles, *Models of Revelation*, xi.

104) Cf. A. Dulles, “The symbolic Structure of Revelation”, *TS* 41(March/1980), 51-73.

105) Cf. A. Dulles, *Models of Revelation*, 144.

106) Cf. A. Dulles, “The Church: Sacrament and Ground of Faith” in R. Latourelle and G. O’Collins, ed., *Problems and Perspectives of Fundamental Theology*, New York, 1982, 268-271; Id., *A Church to Believe In*, 48-52; Id., “The Essence of Catholicism: Protestant and Catholic Perspectives”, *Thom* 48(October/1984), 607-633.

107) Cf. A. Dulles, “The Catholicity of the Augsburg Confession”, *Journal of Religion*(이하 *JR*) 63(October/1983), 337-354, 특별히 352-353.

108) Cf. A. Dulles, “Umrisse meiner theologischen Methode”, 59-60.

의 신앙고백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교의 공통된 원칙을 해석한다. 이러한 원칙은 특별히 ‘교회의 내적 삶과 예배’¹⁰⁹⁾를 드러내는 ‘성사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¹¹⁰⁾ 즉 그리스도교의 다원성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가톨릭성의 상징’이라는 질적으로 중재되고 화해된 다양성의 차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티클 “The Church as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¹¹¹⁾과 저서 *A Church to Believe In*(1982)¹¹²⁾ 그리고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1985)¹¹³⁾는 가톨릭성의 중심 심볼로서 베드로의 직무를 연결시킨다(LG 13 참조). 물론 ‘가톨릭성의 내부로부터(ad intra) 쇄신’이라는 열쇠를 쥐고 정적이고 법률적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말이다. ‘봉사직무의 베드로 좌’는 외부로 향해 서 있는(ad extra) 구체적인 세상과 모든 그리스도교와의 친교적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 직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치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¹¹⁴⁾

2.3. 세 번째 시기(1988~2008)

세 번째 시기는 1988년 딜레스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은퇴한 해에서부터¹¹⁵⁾ 2007년까지 뉴욕의 Fordham University, Laurence J. McGinley¹¹⁶⁾ 좌(座)에서 ‘종교와 사회’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109) Cf. A. Dulles, “Vatican II and the Church’s Purpose”, *ThD* 32(Winter/1985), 345~347.
 110) Cf. A. Dulles, “The Catholicity of the Augsburg Confession”, 352~353.
 111) Cf. A. Dulles, “The Church as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OiC* 35(1/1999), 12~26.
 112) Cf. A.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 New York, 1982.
 113) Cf. A. Dulles,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Oxford; New York, 1985.
 114) Cf. A.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 (New York, 1982), pp. 133~148. A. Dulles,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127~146. A. Dulles, “The Church as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21.
 115) Cf. A. Kirmse and Michael M. Canaris, ed., *The Legacy of Avery Cardinal Dulles, S.J.*, 96.
 116) 예수회 회원 Laurence J. McGinley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 *Fordham University*의 총장이었다. 이 시기에 *Fordham University*는 초등 교육(junior year)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러시아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

다. 특별히 그의 저작 *Church And Society; The Laurence J. McGinley Lectures, 1988-2007*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강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한다. 이 작품은 가톨릭 전승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주안점을 둔 덜레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¹¹⁷⁾ “종교와 정치”¹¹⁸⁾ “인간의 권리”¹¹⁹⁾ “신앙과 진화”¹²⁰⁾ “용서”¹²¹⁾ “현대 세계에서 ‘지옥’의 의미에 대한 고찰”¹²²⁾ 등 다양한 주제를 교회와 사회-문화-정치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한다.

이 시기에 탄생한 덜레스의 저작들은, 80년대의 저서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1985)와 *The Reshaping of Catholicism*(1988)에 이어서, 에큐메니컬 신학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문화의 복음화’라는 ‘가톨릭성’의 주제와 결부시킨다.¹²³⁾ 이러한 방향은 1996년의 아티클 “Church as Communion”¹²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특별히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상¹²⁵⁾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첫 번째 십년 동안의 공의회에 대한 주석들

대시켰다. 그는 교수직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의 총장을 역임 했을 뿐 만 아니라, 부속학교들(Secondary Schools)의 교장으로 지내면서 고등교육 기관 연합 위원회(The Association’s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은퇴 이후에도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몇 년 동안은 College Relations at St. Peter’s College in Jersey City의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이에 1985년 Fordham University는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The Laurence J. McGinley Chair in Religion and Society*를 설립했다.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391-392.

117) Cf. A. Dulles, *Church and Society; The Laurence J. McGinley Lectures, 1988-2007*, New York, 2008, xviii-xix.

118) 예를 들어서, “Relig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s”, in *Church and Society, 1988-2007*, 116-128.

119) 예를 들어서, “Human Rights”, 276-290.

120) 예를 들어서, “Evolution, Atheism, and Religious Belief”, 509-521.

121) 예를 들어서, “When to Forgive”, 373-386.

122) 예를 들어서, “The Polulation of Hell”, 387-400.

123)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65.

124) Cf. A. Dulles, “The Church as Communion”, in B. Nassif, ed.,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Theology*, Grand Rapids, 1996, 125-139.

125) Cf. A. Dulles,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Studia Missionalia*(이하 *StMiss*) 48(Settembre/1999), 169-179.

(1965~1975)¹²⁶⁾은 델레스로 하여금 교회의 가톨릭성이 드러내는 문화의 복음화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인도한다.¹²⁷⁾ 그는 1995년의 아티클 “La Ricezione della Evangelii Nuntiandi”(1996)¹²⁸⁾와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¹²⁹⁾ 그리고 “Seven Essentials of Evangelization”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Evangelii Nuntiandi*(1975)¹³⁰⁾의 ‘새로운 복음화’ 신학과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Redemptoris Missio* 신학을 심화시키면서 “복음화의 일곱 가지 본질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첫째, 교회 내적으로 쇄신된 개념으로서의 복음화. 둘째, 교회 전체 구성원의 미션 사명에 활발한 참여로서의 복음화. 셋째,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 틀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증거로서의 복음화. 넷째, 구분될 수는 있어도 분리될 수는 없는 “대화”와 “선포”로서의 복음화. 다섯째, 문화 안에서의 복음화. 여섯째,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교회의 임무를 통한 복음화. 일곱째, 새로운 매스 매디어의 사용을 통한 복음화. 결국 교회의 가톨릭성은¹³¹⁾ 옛 전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126) Cf. A. Dulles,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168.

127) Cf. Roberta R. Spezia, *The Ecclesiology of Avery Dulles, S.J.*, 72.

128) Cf. A. Dulles, “La Ricezione della *Evangelii Nuntiandi*”, *CivCatt* 3(7 Luglio/1996), 28~39.

129) Cf. A. Dulles,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America* 166(February/1992), 52~59, 69~72(A. Dulles, *Church And Society*, 87~102).

130) Cf. A. Dulles, “Seven Essentials of Evangelization”, *Origins* 25(23 November/1995), 397.

131) Cf. A. Dulles, “Catholicism and America Culture: The Uneasy Dialogue”, *America* 162(1990), 54~59(*Church And Society*, 27~42); Id., “The Four Faces of American Catholicism”, *Louvain Studies*(이하 *LouvSt*) 18(Spring/1993), 99~109.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그의 1990년 아티클 “Catholicism and American Culture: The Uneasy Dialogue”(1990), 54~59: (독일어판) “Katholizismus und amerikanische Kultur – der risikante Dialog”, *Stimmen der Zeit: Ergänzungshefte*(이하 *StZ*) 209(März/1991), 163~171: (이탈리아어판) “Cattolicesimo e cultura americana: Un dialogo difficile”, *CivCatt* 3(7. Luglio/1990), 16~25 그리고 cf. Id., *The New World of Faith*, Huntington; Indiana, 2000, 165~168]에서, 델레스는 ‘미국의 문화 상황’이라는 파노라마를 제시하면서, 70~80년대의 미국의 문화와 가톨릭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치 평가한다. 더 나아가 1993년 아티클 “The Four Faces of American Catholicism”(99~109)과 특별히 “Narrowing the Gap: Gospel and Culture”(1994), 677~680] 그리고 “Orthodoxy and Social Change”(1998), 8~17]에서 델레스는 미국 상황에 필요한 ‘문화와 신앙의 내적 관계’를 심화시킨다.

는 의미이며(마태 5,17 참조), 이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문화 그리고 사회 변형의 원동력’을 뜻한다.¹³²⁾ 같은 신학적 맥락에서 델레스는 다양한 아티클들 곧, “Book Review: A Theology of the World’s Religions, by Keith Ward”와 “John Paul II on Religious Freedom: Themes from Vatican II” 그리고 “Commentary(in The Holocaust, Never to be forgotten)”와 “Religious Freedom: Innovation and Development” “Dominus Iesus: A Catholic Response” “Christ Among the Religious” “Covenant and Mission” “World Religions and the New Millennium” 그리고 “The Covenant with Israel”¹³³⁾을 통해서,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새로운 복음화’를 심화시킨다. 여기서 교회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한 봉사의 미션 안에서 찾아야하며 더 나아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승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델레스는 *The Splendor of Faith: The Theological Vision of Pope John Paul II*(이 저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2003년에는 교황 선출 25주년 기념으로 재출판 되었다)와 *The New World of Faith* (2000년)

132) Cf. A. Dulles, “Seven Essentials of Evangelization”, *Origins* 25(23 November/1995), 399; Id., “The Prophetic Humanism of John Paul II”, *America* 169(October 23/1993), 6-11(*Church And Society*, 142-156); Id., “John Paul II Theologian”, *Com(US)* 24(Winter/1997), 713-727; Id., “The Ecclesiology of John Paul II”, *Origins* 28(April 22/1999), 759-763; Id., “John Paul II on Religious Freedom: Themes from Vatican II”, *Thom* 65(April/2001), 161-178; Id., “L’Église dans le monde”, *Documentation Catholique*(이하 DC) 99(3 Novembre/2002), 936-944. 또한 Cf. A. Dulles, *The New World of Faith*, 114-115.

133) Cf. A. Dulles, “Book Review: *A Theology of the World’s Religions*, by Keith Ward”, *TS* 55(March/1994), 398-399; Id., “John Paul II on Religious Freedom: Themes from Vatican II”, *Thom* 65(April/2001), 161-178; Id., “Commentary”, in *The Holocaust, Never to be forgotten: Reflections on the Holy See’s Document ‘We Remember’*, New York, 2001, 47-72; Id., “Religious Freedom: Innovation and Development”, *First Things*(December/2001), 35-39; Id., “Dominus Iesus: A Catholic Response”, *Pro Ecclesia* 10(Winter/2001), 5-6; Id., “Christ Among the Religious”, in *Church And Society*, 360-372[(프랑스어판) “L’Église dans le monde”, *DC* 99(3 novembre/2002), 936-942]; Id., “Covenant and Mission”, *America* 187(October 21/2002), 8-11; Id., “World Religions and the New Millennium” in Daniel Kendall and Gerald O’Collins, ed., *In Many and Diverse Ways: In Honor of Jacques Dupuis*, NY: Orbis, 2003, 3-13; Id., “The Covenant with Israel”, *First Things* 157(November/2005), 16-21.

그리고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2009년)¹³⁴⁾을 출판한다. 첫 번째 저서에서 그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원칙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쇠신은 개개인 삶의 문화-사회 전반과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저서는 또 다른 “신앙의 새로운 세계”¹³⁵⁾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은 그리스도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유산과 복음화와 반대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오류들을 검토하여 비판한다.¹³⁶⁾ ‘현 시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세속의 도전들에 맞서면서도 세상을 향해 복음화에 투신하는 교회’라는 시대의 징표를 감지하면서, 세 번째 저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상호 인격주의 신학을 표방하며 제도로서의 교회관 대신 제자들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범 그리스도교적 교회론에 더욱 열정적으로 초점을 맞춘다.¹³⁷⁾

특별히 90년대 중반 이후 델레스는 세상을 향해 서 있는 교회의 일치된 복음화 사명을 통렬히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명에 맞서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가톨릭 교회 교도권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집중한다.¹³⁸⁾ 즉 가톨릭성의 신학과 에큐메니즘 안에서도 가톨릭 교의의 원칙들에 대한 충실성을 고백하는 신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티클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Catholic Tradition”(1997)과 “Orthodoxy and Social Change”(1998) 그리고 “Editorial Symposium; Catholicism 101: Challenges to a Theological Education”과 “The Orthodox Imperative”(2006)¹³⁹⁾는 신학자들이 일으킨 “문화적 세속화”¹⁴⁰⁾

134) Cf. A. Dulles,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2009, 특별히 30-41.

135) Cf. A. Dulles, *The New World of Faith*, 11-12.

136) Cf. A. Dulles, *The New World of Faith*, 45.

137) Cf. A. Dulles, *The Splendor of Faith*, vii-x, 159-169, 259-262; 또한 Id., “The Prophetic Humanism Of John Paul II”, *America* 169(October 23/1993), 7-10.

138) Cf. A. Dulles, “Seven Essentials of Evangelization”, 400.

139) Cf. A. Dulles,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Catholic Tradition”, in Patrick W. Carey and Earl C. Mueller, ed.,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Catholic Tradition: Contemporary Challenges*, New York, 1997, 10-22; Id., “Orthodoxy and Social Change”, *America* 178(June 20-27/1998), 8-17; Id., “Editorial Symposium; Catholicism 101: Challenges to a Theological Education”, *Horizons* 33(Fall/2006), 특별히 309; Id., “The Orthodox Imperative”, *First Things*

에 대해서 문제 삼는데,¹⁴¹⁾ 특별히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극단적 민주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주의를 영적 분열의 한 종류로서 제시한다.¹⁴²⁾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아티클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와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¹⁴³⁾(1995) 그리고 “Humanae Vitae and Ordinatio Sacerdotalis”¹⁴⁴⁾(1999)는 교도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다양한 세속적 흐름은 복음을 증언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난하고 빈약한 길로 이끈다고 고발하면서,¹⁴⁵⁾ 교회 일치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산을 변함없이 지키는 교도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¹⁴⁶⁾ 또한 “Review of Church Teaching Authority: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ies, by John P. Boyle”와 “The Unity for Which Hope”¹⁴⁷⁾에서, 그는 세속화된 현 시대에 교도권의 역할이 가장 잘 수행될

165(Agust~September/2006), 특별히 31.

140) Cf. A. Dulles, “Orthodoxy and Social Change”, 9-10; Id., A Testimonial to Grace, 132-133.

141) Cf. A. Dulles, “Orthodoxy and Social Change”, 13.

142) Cf. A. Dulles,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Catholic Tradition”, 16-17; Id., “Catholic, Doctrine: Between Revelation and Theology”, *PCTSA* 54(June 10-13/1999), 89-90.

143) Cf. A. Dulles,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 303-315; Id.,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 *Pro Ecclesia* 8(Winter/1995), 73-84.

144) Cf. A. Dulles, “Humanae Vitae and Ordinatio Sacerdotalis”, in Philip J. Murnion, ed., *Church Authority in American Culture: The Second Cardinal Bernardin Conference*, New York, 1999, 14-28. 여기서, 탈레스는 ‘교도권과 신학자들의 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시카고의 추기경 Joseph Bernardin의 “공통 주제 모임”(Common Ground)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서 Cf. “Cardinal Bernardin/The Common Ground Project, Called to Be Catholic: Church in a Time of Peril”, *Origins* 26(August 29/1996), 165-170; 또한 cf. Philip J. Murnion, “Introduction to Church Authority in American Culture: The Second Cardinal Bernardin Conference”, 2-3.

145) Cf. A. Dulles, “Humanae Vitae and the Crisis of Dissent”, *Origins* 22(April 22/1993), 특별히 777; Id., “How to Read the Pope”, *The Tablet*(July 25/1998), 특별히 968. 또한 Cf. “The Magisterium, Theology and Dissent”, *Origins* 20(March 28/1991), 692-696; Id., “The Question of Dissent”, *The Tablet* 18(August/1990), 1033-1034.

146) Cf. A. Dulles,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 313; Id.,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 80-81.

147) Cf. A. Dulles, “Review of Church Teaching Authority: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ies, by John P. Boyle”, *Fist Things* 65(August-September/1996), 58; Id., “The Unity for Which Hope”, in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oward a Common Mission*, 133.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지켜야 할 가톨릭 원칙을 제시하고,¹⁴⁸⁾ 그들에게 ‘교도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머물면서 도’¹⁴⁹⁾ ‘신학의 세속화’¹⁵⁰⁾에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¹⁵¹⁾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현 시대의 상대주의와 역사-과학주의 그리고 주관주의와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대주의¹⁵²⁾에 의해서 질식되어 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의 아티클 “Evangelizing Theology”와 “Pastoral Response to the Teaching on Women’s Ordination” 그리고 그의 저서 *The Priestly Office*와 *The Splendor of Faith*는 교회의 일치와 복음화를 오염시키는 세속화에 반대하여 가톨릭 교회의 ‘참된 쇄신’¹⁵³⁾을 기획한다.¹⁵⁴⁾ 이러한 이유는 왜 덜레스가 그의 아티클 “The Four Faces of American Catholicism”¹⁵⁵⁾과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¹⁵⁶⁾ 그리고 “Models for Ministerial Priesthood”(1990), “Women’s Ordination: Six Responses”(1994), “Women’s Ordination and Infallibility 2: Tradition says No”(1995), “Pastoral Response to the Teaching on Women’s Ordination”(1996) 그리고 “L’Ordinazione delle donne: I motivi per dire no”(1998)와 “Humanae Vitae

148) Cf. A. Dulles, “The Unity for Which Hope”, in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oward a Common Mission*, 130.

149) Cf. A. Dulles,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 312; Id., “Orthodoxy and Social Change”, 10.

150) Cf. A. Dulles,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 314.

151) Cf. A. Dulles, *op.cit.*, 313.

152) Cf. A. Dulles, “Orthodoxy and Social Change”, 12; Id., “Catholic, Doctrine: Between Revelation and Theology”, 91; Id.,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 80; Id., “Review of *Mother Church: Ecclesiology and Ecumenism*, by Carl E. Braaten”, *First Things* 89(January/1999), 44.

153) Cf. A. Dulles, “True and False Reform”, *First Things* 135(August-September/2003), 14~19.

154) Cf. A. Dulles, “Evangelizing Theology”, 31; Id., “Pastoral Response to the Teaching on Women’s Ordination”, *Origins* 26(August 29/1996), 179; Id., *The Priestly Office*, New York, 1997. 특별히 51~52; Id., *Splendor of Faith*, 특별히 64.115.165.

155) Cf. A. Dulles, “The Four Faces of American Catholicism”, 107.

156) Cf. A. Dulles,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America*(1 February/1992), 52~59.69~72.

and *Ordinatio Sacerdotalis*”(1999)¹⁵⁷⁾에서 사제직무에 대해 심화시키고 특별하게는 가톨릭전승(Tradizione)의 기준 안에서 여성들의 사제직에 대해서 논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델레스는 “Book review: *The Exercise of the Primacy: Continuing the Dialogue*, by Phyllis Zagano and Terrence W. Tilley”와 “Review of *Towards a Papacy in Communion: Perspectives from Vatican Councils I and II*, by Hermann J. Pottmeyer”¹⁵⁸⁾ 그리고 “Review of *The Reform of the Papacy: the Costly Call to Christian Unity*, by John R. Quinn”¹⁵⁹⁾와 “*The Papacy for a Global Church*”,¹⁶⁰⁾ “*The Future of the Papacy: A Symposium*”¹⁶¹⁾ 그리고 “*The Petrine Office in the Service of Unity*”¹⁶²⁾를 통해 교황권의 주제를 가톨릭의 일치성과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전개시키는 것이다.¹⁶³⁾

Patrick W. Carey에 의하면,¹⁶⁴⁾ 델레스의 전반적인 사상은 예수회 전통에 충실하게 머물면서, 가톨릭신학 공동체가 고수해온 ‘연속성

157) Cf. A. Dulles, “Models for Ministerial Priesthood”, *Origins* 20(October 21/1990), 284-289; Id., “Women’s Ordination: Six Responses”, *Comm* 121(June 15/1994), 10-11; Id., “Women’s Ordination and Infallibility 2: Tradition says No”, *The Tablet* 249(9 December/1995), 1572-1573; Id., “Pastoral Response to the Teaching on Women’s Ordination”, *Origins* 26(August 29/1996), 177-180; Id., “L’Ordinazione delle donne: I motive per dire no”, *CivCatt* 3554(1998), 119-128; Id., “*Humanae Vitae and Ordinatio Sacerdotalis*”, in *The Second Cardinal Bernardin Conference, Church Authority in American Culture*, 14-28.

158) Cf. A. Dulles, “Book Review: *The Exercise of the Primacy: Continuing the Dialogue*, by Phyllis Zagano and Terrence W. Tilley” 그리고 “Review of *Towards a Papacy in Communion: Perspectives from Vatican Councils I and II*, by Hermann J. Pottmeyer”, *Thom* 63(April/1999), 309, 312-313.

159) Cf. A. Dulles, “Review of *The Reform of the Papacy: the Costly Call to Christian Unity*, by John R. Quinn”, *First Things* 104(June-July/2000), 62-64.

160) Cf. A. Dulles, “*The Papacy for a Global Church*”, *America* 183(July 15-22/2000), 6-11.

161) Cf. A. Dulles, “*The Future of the Papacy: A Symposium*”, *First Things* 111(March/2001), 31-32.

162) Cf. A. Dulles, “*The Petrine Office in the Service of Unity*”, *Origins* 31(April 4/2002), 708.

163) Cf. A. Dulles,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 82.

164)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160; A. Dulles, *A Testimonial to Grace*, 109; A. Kirmse and Michael M. Canaris, ed., *The Legacy of Avery Cardinal Dulles, S.J.*, 100.

의 원칙'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자율'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에큐메니컬 신학을 전개시키면서 '이나시오 영성'을 구현했던 것이다. 이 점은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그의 아티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Jesuits and Theology: Yesterday and Today"와 "Saint Robert Bellarmine: a Moderate in a Disputatious Age" "The Ignatian Tradition and Contemporary Theology" 그리고 "Theological Education in Jesuit Formation"와 "What Distinguishes the Jesuits?; The Ignatian Charism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Book in Review: Passionate Uncertainty: Inside The American Jesuits, by Peter McDonough and Eugene C. Bianchi"¹⁶⁵⁾에서 델레스는 에큐메니컬 신학의 실재를 예리하게 진단하면서도 교회의 내적 쇠신을 위한 기준을 신앙의 유산 안에서 고수하는 것이다.¹⁶⁶⁾ 가톨릭 신학과의 연속성 안에서 구현되는 이나시오 영성은 델레스로 하여금 '교계의 권위'와 '내적 쇠신을 위한 예언자적 자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¹⁶⁷⁾ 또한 1994년의 저서 *Il fondamento delle cose sperate: Teologia della fede cristiana*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즘 안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원칙들을 충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방법론을 제시한다.¹⁶⁸⁾ 그에게 있어서 "하나인 사

165) Cf. A. Dulles, "Jesuits and Theology: Yesterday and Today", *TS* 52(December/1991), 524-538; Id., "Saint Robert Bellarmine: A Moderate in a Disputatious Age", *Crisis* 12 (December/1994), 39-44; Id., "The Ignatian Tradition and Contemporary Theology", *America* 176(April/1997), 14-22(*Church And Society*, 234-247); Id., "Theological Education in Jesuit Formation", *Review for Religious*(이하 *RfR*) 59(May-June 2000), 230-240; Id., "What Distinguishes the Jesuits?; The Ignatian Charism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America* 196 (January 15-22/2007), 20-25(*Church And Society*, 497-508); 또한 cf. Id., "Book In Review: *Passionate Uncertainty: Inside The American Jesuits*, by Peter McDonough and Eugene C. Bianchi", *First Things* 122(April/2002), 37-41.

166) Cf. Patrick W. Carey, *Avery Cardinal Dulles, S.J.*, 403.

167) Cf. A. Dulles, "The Ignatian Charism and Contemporary Theology", 22(*Church And Society*, 244-245).

168) Cf. A. Dulles, *Il fondamento delle cose sperate: Teologia della fede cristiana*, (Queriniana, Brescia), 1994. 이 시기에 탄생한 다음의 두 저서들은 델레스의 왕성한 에큐메니컬 활동력을 드러낸다. 즉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oward a Common Mission* (Charles Colson and Richard John Neuhaus, ed., Dallas, Texas, 1995)과 *Your Word is Truth:*

도적 신앙¹⁶⁹⁾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의 체계로 하여금 교회의 가톨릭 일치에 좀 더 심오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강조하는 그의 아티클 “Faith and Revelation”과 “The Ecclesial Dimension of Faith”¹⁷⁰⁾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2년의 아티클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¹⁷¹⁾와 그의 저서 *The Craft of Theology*¹⁷²⁾는 심볼-성사로서의 교회관과 다양한 신학적 모델들로 종합을 이루는 딜레스의 방법론을 제시한다.¹⁷³⁾ 특별히 후자는 ‘전통적인 호교론에 대한 비평’을 시작으로 ‘성서 신학자들의 방법론’을 다룰 뿐만 아니라 ‘신학적 원천으로서의 전승’(Tradizione)과 ‘교도권’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어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자의 학문적 자율성’과 ‘에큐메니컬 신학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가톨릭전승 안에서 해석된

A Project of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Charles Colson and Richard John Neuhaus, ed., Michigan, Cambridge, 2002). 사실, 딜레스는 미국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그리스도교의 유산과 문화를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딜레스의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 혹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Evangelical Christians)은 형식적인 교의로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복음화의 원칙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킨다. 그의 아티클 “Revelation, Scripture, and Tradition” (in *Yours word is truth: A Project of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35~58), “The Unity for Which We hope”(in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oward a Common Mission*, 115~146) 그리고 “Ecumenism Without Illusions: A Catholic Perspective” [*First Things* 4 (June~July/1990), 20~25]에서, 딜레스는 가톨릭 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미래지향적 협동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정치적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룹들이 어떻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에큐메니즘을 어떻게 저해하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Cf. A. Dulles, “Narrowing the Gap: Gospel and Culture”, *Origins* 23(17 March/1994), 677~680.

169) Cf. A. Dulles,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 51~52.

170) Cf. A. Dulles, “Faith and Revelation”, in F. S. Fiorenza, J. P. Galvin, *Systematic Theology: Roman Catholic Perspectives I*, Minneapolis, 1991, 91~128; Id., “The Ecclesial Dimension of Faith”, *Com(US)* 22(Fall/1995), 418~432.

171) Cf. A. Dulles,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 42~52.

172) Cf. A. Dulles, *The Craft of Theology: From Symbol to System*, Crossroad, New York, 1992. 이 저서는 1992년 첫 출판 이후, 새로운 제13장 “신학과 전례”(Theology and Worship)와 “역사적 방법론과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재”(Historical Method and the Reality of Christ)를 포함하여 1995년에 새롭게 출판되었다.

173) Cf. A. Dulles,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 43.

호교론의 심화 작업은 더 나아가 1996년의 “Evangelizing The- ology” 과 2004년의 “The Rebirth of Apologetics” 그리고 2005년의 “Mere Apologetics” 그리고 저서 *A History of Apologetics*¹⁷⁴⁾에서도 다루어진다. 여기서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된 호교론은 갈라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¹⁷⁵⁾ 또한 이 시기에 탄생한 아티클 “Newman, Conversion, and Ecumenism”(1990년) 과 “Newman: The Anatomy of a Conversion”(1997년)¹⁷⁶⁾ 그리고 저서 *Outstanding Christian Thinkers: Newman*(2002)은 텔레스 자신에게 깊은 신학적 영향을 끼친 뉴먼의 기초신학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다. 뉴먼의 종교적 인식론은 텔레스로 하여금 신앙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의의 재형성 단계’를 에큐메니컬 교회론에 적용시키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1991년의 “Magisterium and Theological Method”¹⁷⁷⁾과 1992년의 “Tradition and Creativity in Theology”¹⁷⁸⁾ 그리고 1994년의 “Tradition and Creativity: A Theological Approach”¹⁷⁹⁾과 2001년의 “Tradizione autentica e non autentica”¹⁸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에큐메니컬 정신을 따르면서

174) Cf. A. Dulles, “Evangelizing Theology”, *First Things* 61(March/1996), 27~32; Id., “The Rebirth of Apologetics”, *First Things* 143(May/2004), 18~23(Church And Society, 430~442); Id., “Mere Apologetics”, *First Things* 154(June~July/2005), 15~20.

175) Cf. A. Dulles, “Book Review; *Religion and Revelation: A Theology of the World's Religions*, by Keith Ward”, *TS* 55(March/1994), 165~166; Id., “Faith, Reason, and Wisdom”, *Living Pulpit* 9(July~September/2000), 14; Id.,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115; Id., “Mere Apologetics”, 15~20.

176) Cf. A. Dulles, *Outstanding Christian Thinkers: Newman*, London, 2002; Id., “Newman, Conversion, and Ecumenism”, *TS* 51(1990), 717~731; Id., “Newman: The Anatomy of a Conversion”, in I. T. Ker, *Newman and Conversion*, Edinburgh, 1997, 21~36.

177) Cf. A. Dulles, “Magisterium and Theological Method”, *Seminarium* 43(Aprili~Junio/1991), 289~299. 같은 주제가 텔레스의 전반기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Cf. Id., “Scripture: Recent Protestant and Catholic Views”, *ThTo* 37(April/1980), 7~26. 그리고 Id., “The Magisterium in History: A Theological Perspective”, *ThEd* 19(Spring/1983), 7~26.

178) Cf. A. Dulles, “Tradition and Creativity in Theology”, *First Things* 27(November/1992), 21~27.

179) Cf. A. Dulles, “Tradition and Creativity: A Theological Approach”, in Kenneth Hagen, ed., *Quadriolog: Tradition and the Future of Ecumenism; Essay in Honor of George H. Tavard*, Callegeville, Minnesota, 1994, 312~327.

텔레스의 신학적 방법론에 기초를 이루는 세 가지 규범적 원천들(성경과 전승 그리고 교도권을 제시한다. 물론 2007년의 저서 *Magisterium: Teacher and Guardian of the Faith*¹⁸¹⁾는 이들 세 가지 원천들 중에서 교도권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만 말이다.

텔레스의 신학적 방법론은 한편으로는 에큐메니즘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의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가톨릭 신학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유산이 현 시대에 올바르게 적절하게 육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러한 신학적 고민은 세속주의 내에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아티클 즉 “Review of The Concept of Faith: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과 “Faith, Reason, and Wisdom”(2000) 그리고 “Can Philosophy Be Christian?”(2000)과 “Ragione, Fede, e Teologia”(2001)¹⁸²⁾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텔레스가 펼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그의 생애 말년까지 끊임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분야는 바로 에큐메니즘이었다. 2003년에 재-출판된 저서 *The Splendor of Faith: The Theological Vision of Pope John Paul II*와 그의 가장 최근 저서 2009년의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2009)¹⁸³⁾은 여전히 에큐메니컬 신학의 방법론¹⁸⁴⁾에 주의를 기울이

180) Cf. A. Dulles, “Tradizione: Autentica e non Autentica”, *Com(US)* 178(Luglio~Agosto/2001), 17~23.

181) Cf. A. Dulles, *Magisterium: Teacher and Guardian of the Faith*, Naples; Florida, 2007.

182) Cf. A. Dulles, “Review of *The Concept of Faith: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by William Lad Sessions”, *TS* 56(March/1995), 174~176; Id., “Faith, Reason, and Wisdom”, *Living Pulpit* 9(July~September/2000), 14; Id., “Can Philosophy Be Christian?”, *First Things* 102 (April/2000), 24~29(*Church And Society*, 291~305); 그리고 Id., “Ragione, Fede, e Teologia”, *CivCatt* 1(5. Maggio/2001), 246~253. 텔레스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신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신학과 철학의 종합이요, 인간학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역설한다. Cf. Id., “Reason, Philosophy, and the Grounding of Faith: A Reflection on *Fides et Ratio*”, in *International Philosophical Quarterly*(이하 *IPQ*) 40(December/2000), 479~490; Id., “Faith and Reason: From Vatican I to John Paul II”, in Joseph W. Koterski, ed., *The Two Wings of Catholic Thought: Essays on Fides et Ratio*, Washington D.C., 2003, 193~208.

183) 텔레스는 Fordham University의 Laurence J. McGinley Professor로 역임하는 동안, 복음화에 대한 주제를 특성화시켜 한 권의 저서를 집필하려고 하였으나, 그 초본은

면서 에큐메니즘과 다양한 종교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¹⁸⁵⁾ 복음화와 에큐메니즘¹⁸⁶⁾으로부터 착수된 신학적 과정을 진지하게 고찰한다. 또한 그의 아티클 “Saving Ecumenism from Itself”(2007)¹⁸⁷⁾와 “The Freedom of Theology”(2008)¹⁸⁸⁾는 에큐메니컬 신학은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원천들에 대한 선-이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격주의의 대화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종합적으로 결론짓는 것이다.¹⁸⁹⁾

III. 결론

왕성한 에큐메니컬 활동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움직이며 가톨릭의 가시적 중재성의 원칙과 프로테스탄트의 비평적 원칙의 조화를 심화시킨 델레스의 첫 번째 시기와, 교회의 가톨릭성과 가톨릭시즘의 심도 깊은 관계를 모색하며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일으킨 두 번째 시기 그리고 엄격하게 교회 교도권에 대한 순종에 충실하게 머무르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신학 학파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인격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한 온건함을 보편적으로 구체화시킨 세 번째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을

오로지 2007년 2월 그가 간호 병동 Murry-Weigel Hall에 입원한 후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이 저서는 비서 Anne-Marie Kirmse의 도움으로 델레스 추기경 서거 이후 2009년에 탄생한다. 사후 유작으로서 이 작품은 교회를 위한 봉사에 매진한 델레스의 길고도 풍요로운 업적을 담는다. cf. A. Dulles,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2009, v-vi.

184) Cf. A. Dulles, *The Craft of Theology*, 179-196.

185) Cf. A. Dulles, *The Splendor of Faith*, 205-225.

186) Cf. A. Dulles,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53-63.

187) Cf. A. Dulles, “Saving Ecumenism from Itself”, *First Things* 178(December/2007), 23-27; Id., “Ecumenism and Theological Method”, *JES* 17(Winter/1980), 40-48.

188) Cf. A. Dulles, “The Freedom of Theology”, *First Things* 183(May/2008), 19-23. 여기서 델레스는,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과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특별하게 고찰한다. 더 나아가 신학자들의 역할은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르침과 신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189) Cf. A. Dulles, “Saving Ecumenism from Itself”, 43.

통해 드러난 덜레스의 에큐메니컬 교회론의 재료들은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로 하여금 구체적 현실적으로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이라는 원칙하에 상호 이해를 가속화시키도록 초대할 것이다. 소외의 여러 세기를 경험했던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분열된 그리스도교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가 에큐메니컬 교회론과 세상과의 인격적 대화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과연 세상을 향한 이러한 ‘에큐메니컬 온건함’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덜레스의 아름다운 신학적 결과물이다. 덜레스 자신이 자신의 전 작품들을 통해 드러낸 대로, 에큐메니컬 교회론은 첫째, 상호 존중의 대화를 지향하고, 둘째 가톨릭 신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쇄신을 바라며, 셋째 신학에 대한 진중한 에큐메니컬 교육을 일으킨다. 더 나아가 넷째, 상호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존재해야 할 인격적 만남을 주선하면서도, 다섯째 비공식적인 에큐메니즘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결국 내일의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오늘보다 더 ‘에큐메니컬’ 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¹⁹⁰⁾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사명을 자신의 전 작품에 고스란히 담은 덜레스의 노력은 결국 새로운 현대적 상황들 앞에서 교회를 쇄신시키느냐 혹은 세속 주의로부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로 결론 맺을 수 있다. 교회의 내적 쇄신으로부터 전개되는 이러한 신학적 방향은 다른 그리스도교와 공동체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의 요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신(LG 8 참조)으로부터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한편으로는 비-가톨릭 형제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의 요소들을 수용하기 위한 인격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덜레스는 교도권의 가르침들에 충실하게 머무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길을 일치시키는 끈은 ‘에큐메니즘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이다.¹⁹¹⁾ 곧 덜레스 스스로가

190) Cf. A. Dulles, “A Proposal to Lift Anathemas”, *Origins* 27(December 26/1974), 417-421.

191) Cf. A. Dulles, *A Church to Believe In*, p.102; Id., “Tradition and Creativity in Theology”, *First Things* 27(November/1992), 24.

‘에큐메니즘’이라는 주제에 창조적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그만큼 가톨릭 전승에 대한 충실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¹⁹²⁾ 결국 그의 신학적 결과물에게 있어서 에큐메니즘은 교회가 지닌 가톨릭성의 질적인 교회론 안에서 구성되는데, 이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두 축으로부터 세워진다. 첫째, 에큐메니컬 교회론은 적법한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격적으로 환대하면서 다양한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입지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한다. 둘째, 에큐메니컬 교회론은 교회의 내적-외적 쇄신들을 표방하는 창조적이고 개방적이며 점진적 전개들을 따르면서도 가톨릭 전승의 원칙들에 충실하게 머문다.

192) Cf. A. Dulles, “Tradition and Creativity in Theology”, 20.

[참고 문헌]

[애버리 델레스의 주요 저서 및 주요 아티클]

1. 저서

- Dulles, A., *The Dimensions of the Church*, The Missionary Society of Saint Paul the Apostle, Westminster, 1967.
- _____, *The Survival of Dogma*, 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 1969
- _____, *Models of the Church*, Doubleday & Company, Inc., 1974(이탈리아어 판, Luigi dal Lago, Modelli di chiesa, Edizioni Messaggero, Padova, 2005).
- _____, *The Resilient Church*, 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 1977.
- _____, *A Church to Believe In; Discipleship and the Dynamics of Freedom*, Crossroad, New York, 1982.
- _____, *Models of Revelation*, Garden city; New York, 1983.
- _____,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Clarendon Paperbacks; Oxford, 1985.
- _____, *The Reshaping of Catholicism: Current Challenges in the Theology of Church*, San Francisco, 1988.
- _____, *The Craft of Theology: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 Crossroad, New York, 1992.
- _____, *Il fondamento delle cose sperate*, Queriniana, Brescia, 1994.
- _____, *The Splendor of Faith; The Theological Vision of Pope John Paul II*, A Herder & Herder, New York, 1999.

2. 아티클

- Dulles, A., "Eumenical Dialogue and Apostolic Renewal", *The American Ecclesiastical Review* 153(November/1965), 314.
- _____, "Luther's Unfinished Reformation", *The Catholic Mind* 63(April/1965), 32~35.
- _____, "Revelation and The Apostolate", in J. Keller and R. Armstrong, ed., *Apostolic Renewal in the Seminary: in the Light of Vatican Council III*, Christopher Study Weeks, New York, 1965, 111~122.
- _____, "Faith and New Opinions", *America* 117(October 28/1967), 497.
- _____, "Symbol in Revelation", i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13, The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Washington, 1967, 861~863.
- _____, “The Open Church; Did Vatican II Sponsor Religious Indifferentism?”, *Chicago Studies* 8(Spring/1969), 17.20.22~23.
- _____, “The Contemporary Magisterium”, *Theological Digest* 17(Winter/1969), 299~311.
- _____, “El Dilema Moderno de la Fe” in *Colección «Teología Y Mundo Actual» 20: Hacia una Teología de La Fe Católica*, Santander, 1970, 19~40.
- _____, “Reflections on Doctrinal Agreement”, in H. J. Ryan and J. R. Wright, ed., *Episcopalians and Roman Catholics: Can They Ever Get Together?*, Denville, N.J., 1972, 51~66.
- _____, “The Papacy: Bond or Barrier?”, *The Catholic Mind* 72(September/1974), 55~56.
- _____, “Jewish-Christian Relations Since Vatican II: Problems and Prospects”, *The Catholic Mind* 74(March/1976), 45~59.
- _____, “Intercommunion Between Lutherans and Roman Catholics”,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13(Spring/1976), 65~71.
- _____, “Ius divinum as An Ecumenical Problem”, *Theological Studies* 38 (December/1977), 681~708.
- _____, “Doctrinal Authority for a Pilgrim Church”, in C. Curran – R. Mc Cormick, Readings in *Moral Theology* No.3: The Magisterium and Morality, Paulist Press, New York, 1977, 247~270.
- _____, “The Magisterium in History: A Theological Reflection”, *Chicago Studies* 7(Summer/1978), 264~281.
- _____, “What Belongs in a Future Ecumenical Creed? A Catholic Answer”, *Concilium: Religion In the Seventies* 118(8/1978), New York, 77~81.
- _____, “The Symbolic Structure of Revelation”, *Theological Studies* 41(March/1980), 51~73.
- _____, “Infallibility: The Therminology” and “Moderate Infallibilism”, in *Teaching Authority and Infallibility in the Church: Lutherans and Catholicism Dialogue* VI, Minneapolis: Augsburg, 1980, 69~80.81~100
- _____, “Successio Apostolorum — Successio Prophetarum — Successio Doctorum”, *Concilium: Religion in The Seventies* 148(8/1981), 61~67.
- _____, “Faith, Church, and God: Insights from Michael Polanyi”, *Theological Studies* 45(September/1984), 537~550.
- _____, “Vatican II and the Church’s Purpose”, *Theological Digest* 32(Winter/

- 1985), 341~352.
- _____, “Paths to Doctrinal Agreement: Ten Theses”, *Theological Studies* 47 (March/1986), 32~47.
- _____,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Concilium: Religion in the Eighties* 188(6/1986), Edinburgh, 3~13.
- _____, “Reply to D.C. Maguire, ‘Catholicism and Modernity’”, *Horizons* 13 (Fall/1986), 378.
- _____, “Catholic Ecclesiology Since Vatican II”, *Concilium: Religion in the Eighties* 188(6/1986), Edinburgh, 3~13.
- _____, “Church Membership”, in M. Eliade,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3, 1987, Mcmillan, New York, 487~489.
- _____, “Ecumenism Without Illusions: A Catholic Perspective”, *First Things* 4, (June~July/1990), 20~25.
- _____, “Communion” in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WCC Publications, Geneva, 1991, 206~209.
- _____,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in *Church and Society* 166 (February 1/1992), 52~72.
- _____, “The Magisterium, Theology and Dissent”, *Origins* 20(March 28/1991), 692~696.
- _____, “Magisterium and Theological Method”, *Seminarium* 43(Aprili~Junio/1991), 308~310.
- _____, “From Symbol to System: a Proposal for Theological Method”, *Pro Ecclesia* 1(Fall/1992), 42~62.
- _____, “Tradition and Creativity in Theology”, *First Things* 27(November/1992), 21~27.
- _____, “The Church as Locus of Salvation”, in John M. McDermott, ed., *The Thought of Pope John Paul II: A Collection of Essays and Studies*,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à, Roma, 1993, 177~184.
- _____, “The Prophetic Humanism of John Paul II”, *America* 169(October 23/1993), 6~11
- _____, “Foreword”, in Robert J. Kaslyn, “*Communion with the Church*” and the *Code of Canon Law: An Analysis of the Found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Canonical Obligation to Maintain Communion with the Catholic Church*, The Edwin Mellen Press, Lewiston, 1994, iv.
- _____, “Criteria of Catholic Theology”, *Communio(US)* 22(Summer/1995), 303~

315.

- _____, “The Unity for Which We Hope”, in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Toward a Common Mission*, Charles Colson and Richard John Neuhaus, ed., Dallas, Texas, 1995, 115~146.
- _____, “Seven Essentials of Evangelization”, *Origins* 25(23 November/1995), 397~400.
- _____, “The Church as Communion”, in B. Nassif, ed.,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Theology. Essays in Memory of John Meyendorff*, Grand Rapids Michigan, 1996, 125~139.
- _____, “Evangelizing Theology”, *First Things* 65(March/1996), 27~32.
- _____, “John Paul II Theologian”, *Communio* 24(Winter/1997), US, 713~727.
- _____, “The Church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One in Christ* 35 (1/1999), 12~26.
- _____, “Review of *Mother Church: Ecclesiology and Ecumenism* by Carl E. Braaten”, *First Things* 89(January/1999), 46.
- _____,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Studia Missionalia* 48 (September/1999), 166~180.
- _____, “Principles of Catholic Theology”, *Pro Ecclesia* 8(Winter/1999), 73~84
- _____, “The Papacy: Bond or Barrier”, *First Things* 111(March/2001), 49~50.
- _____, “Religious Freedom: Innovation and Development”, *Thomist* 65(April/2001), 35~39.
- _____, “Covenant and Mission”, *America* 187(October21/2002), 8~11.
- _____, “L’Église dans le monde”, *Documentation Catholique* 99(November3/002), 936~944.
- _____, “Economic and Social Order” in *The Splendor of Faith*, 2003, 170~185.
- _____, “Review Essay: A New Orthodox View of the Papacy: *You Are Peter: An Orthodox Reflection on the Exercise of Papal Primacy*, by Olivier Clément”, *Pro Ecclesia* 12(Summer/2003), 356.
- _____, “Book in Review: *The Church in A Post liberal Age*, by G A. Lindbeck”, *First Things* 136(October/2003), 58.
- _____, “Ecumenism and Evangelization”, *Origins* 33(November13/2003), 399~402.
- _____, “Rebirth of Apologetics”, *First Things* 143(May/2004), 18~24.
- _____, “The Enrichment and Transmission of Faith in the Theology of John Paul II” in Joseph W. Koterski and John J. Conley, ed., *Creed and Culture: Jesuit*

- Studies of Pope John Paul II*, Saint Joseph's University, Philadelphia, 2004, 1~15.
- _____, "The Sacramental Ecclesiology of *Lumen Gentium*", *Gregorianum* 86, 3 (2005), 550~562.
- _____, "The Theologian", *America* 192(April 18/2005), 18~22.
- _____, "Review: *A Church that can and cannot Change: The Development of Catholic Moral Teaching*, by John T. Noonan", *First Things* 156(October/2005), 60.
- _____, "Primacy and Collegiality" in J. M. McDermott and J. GAVIN, ed., *John Paul II on The Body: Human Eucharistic Ecclesiale*, Saint Joseph's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Pennsylvania, 2006, 179~194.
- _____, "Christ Among the Religious" in *Church And Society*,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8, 360~372.
- _____, "The Program: Paul VI, John Paul II, and the New Evangelization", in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Paulist Press, New York, 2009, 30~41.
- _____, "The New Evangelization and Theological Renewal", in *Evangeliz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Paulist Press, New York, 2009, 78~89.
- _____, "George Lindbeck Replies to Avery Cardinal Dulles" and "Avery Cardinal Dulles Replies", *First Things* 139(January/2004), 13~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일치적 진리에 대해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희망을 일으키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신학적 '열정'이라고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미국의 예수회 신학자 애버리 로버트 덜레스(Avery Robert Dulles)의 전(全) 작품들을 통해서 원기 왕성한 에큐메니컬 교회론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에큐메니컬 교회론'이라는 중심주제에서 덜레스의 신학적 여정이 결실을 맺은 650여 개의 소논문들(articles)과 28권의 저서들을 그의 생애 시기별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움직이며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과의 왕성한 에큐메니컬 활동을 기본으로 가톨릭의 가시적 중재성의 원칙과 프로테스탄트의 비평적 원칙의 조화를 심화시킨 첫 번째 시기와, 교회의 역사와 전승과정을 중시하며 '인격적 대화'라는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가톨릭성과 가톨릭시즘의 심화된 관계를 이끌어낸 두 번째 시기, 그리고 교회 교도권에 대한 순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신학학파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존중적 대화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한 온건함을 보편적으로 구체화시킨 세 번째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난 덜레스의 에큐메니컬 교회론 재료들은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교회의 일치와 보편성이라는 원칙하에 상호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의 여러 세기를 경험했던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분열된 그리스도교 세계뿐 아니라 현 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지의 주제는 그리스도교가 에큐메니컬 신학과 세상과의 인격적 대화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 주제어: 에큐메니즘, 교회론, 일치, 보편성, 대화.